



5로 판정하는 양돈



유성열
(<주>삼양사 축산시험장장)

지난 달에는 돼지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5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다.

이달에는 5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여러 가지 현상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 그것을 양돈장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면 우선 일어나는 현상이나 돼지개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등급	1	2	3	4	5
호칭	나쁨	처짐	슬만함	좋음	뛰어남
내용	도태	불합격	합격	합격	우수

내 양돈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판정하기 전에 남의 양돈장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생각못하는 점, 앞으로 필요한 점, 또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낮은가 높은가를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 왜 판단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가 그 이유도 알아본다. 또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판단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을 다 판정할 필요도 없다.

내 양돈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고르고 그중에서도 생산비를 줄여주고 판매단가를 높여주는 몇개만 실시해도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또 좋은 결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한다.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어서 꾸준히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양돈장에서 필요한 판정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비육돈의 등지방두께

일령, 체중, 성별, 측정부위, 숙달된 측정작업이 필요하다. 측정작업은 반드시 부모와 연결시켜야 한다.

● 비육돈 출하 소요일수

종돈능력, 환경조건, 사양관리방법을 확인한다. 성별차이도 크다. 출하체중에 따른 차이도 크다. 질병도 확인한다. 개체확인이 되어야 부모와 연결된다.

양돈장에서 필요한 판정내용은 여러가지가 있다. 판정내용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하는가? 몇 사람이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판정자료가 나오는가? 같은 판정기준을 긴시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 발정의 특징

발정의 특징이라 함은 발정시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신체의 변화와 자극에 대한 반응, 즉 교미적기와 외부증세의 연결성 등을 말한다. 발정의 기간, 강도, 지속시간 등은 품종과 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양돈장마다 다르고 새로운 종모돈이 들어오면 일년후부터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교미적기는 신체 외형의 변화를 경험에 의해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른 양돈장의 방법에 따르면 절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

● 다리와 발

다리의 간격(체폭), 다리와 지면과의 각도, 발과 지면과의 각도, 다리의 곧기, 발목의 굽기, 무릎·발목·발굽의 관절상태.

● 식욕

사료먹는 시간. 헤치면서 먹는가. 남의 것을 뺏어 먹는가. 사료통에서 먹지않고 휘집어 내서 흘리지 않는가.

● 분만상태

임신기간, 분만 지속시간, 난산 여부, 분만간격, 산후 이상유무, 특히 초산돈의 첫 포유 등.

● 자돈

체중의 합계. 평균 체중과 개체 체중, 체중의 분포, 총 산자수와 포유개시율, 사산비율, 자돈의 상태.

● 이유자돈

포유 육성율, 개체 체중과 총 체중, 평균 체중, 체중의 균일성, 건강상태.

● 체장과 체고

품종과 가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긴 체장과 높은 체고가 좋은 것은 아니다. 성별로 체고가 비슷해야 한다. 시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 체형

외형으로 보아 등은 평면이며 중앙이 약간 들어간 듯한 줄이 보이는 것이 좋다. 뼈대가 탄탄하고 균형이 잡힌 상태, 햄부위가 크면 좋다.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균형된 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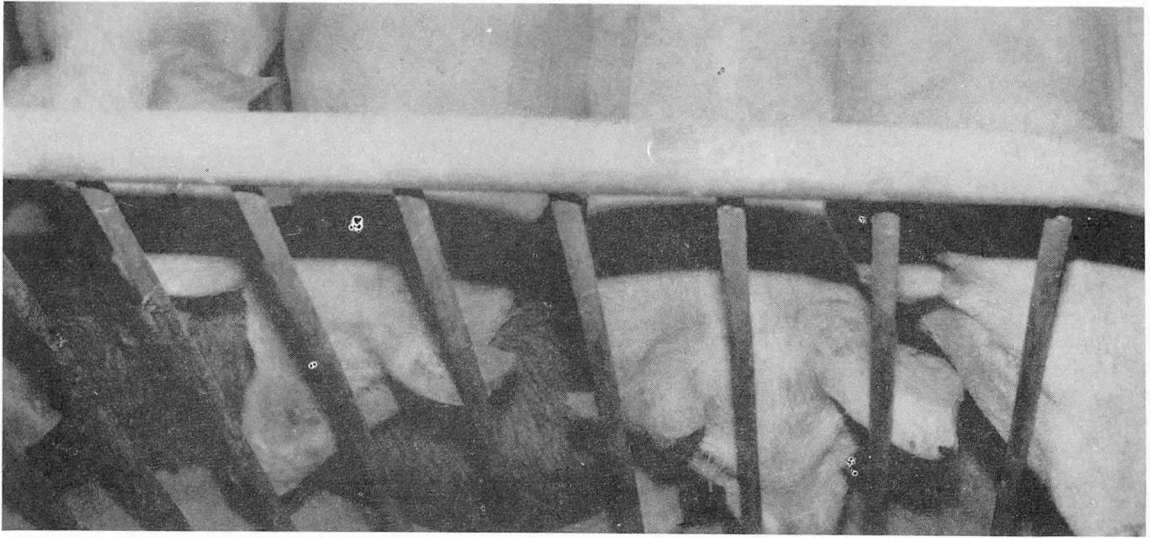
● 우의 번식성적

여러가지를 종합해야 한다. 부족한 항목을 빨리 찾아야 한다. 우의 능력보다는 사양관리 방법의 비중이 더 크다.

● ♂의 평가

능력검정 결과, 후손의 결과, 번식성적, 교배상대에 따른 결과, 육질을 보려면 후손을 검사해야 한다. 정액의 검사, 우계통에 쓸 것인가, 비육돈 교잡용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의 몇 가지 판정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판정내용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하는가? 몇 사람이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판정자료가 나오는가? 같은 판정기준을 긴시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어떤 돼지를 판정하는가? 판정한 자료가 마지막 자료나 아니면 다른 판정을 위한 자료로 쓰이느냐. 비육돈으로 출하하면 끝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송의 능력을 알 수 있다. 닭은 병아리를 매번 사와서 키우게 된다. 지난번의 성적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에는 다른 품종을 사서 키우면 된다. 돼지는 번식돈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출하되는 비육돈의 품질은 보유한 번식돈 우·송 능력의 유전적 평균치 이상을 나타낼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판정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고, 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대부분의 양돈장은 성돈 개체카드가 있다. 그 카드에 필요한 판정의 결과를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적어 넣는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송·우 후보돈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필요한 항목이 5(우수)로 나타났고, 그 후손에

대해 확인하려면 후보선발 또는 비육돈 출하시 까지 확인한 후 그 교배방법(우·송의 가계 짝짓기)을 많이 실시하면 된다.

근친번식을 피하고 능력이 더 빨리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하비육돈은 평균 3(쓸만함)이상이 나오도록 번식돈의 짝짓기를 잘해야 한다. 비육돈에서 1(나쁨)이 나오는 항목이 있으면 부모를 우·송 별로 조사해야 한다. 우·송 비육돈 사람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방법이 1년이 지나면 번식돈이 많이 교체 정비된다. 2년이 지나면 비육돈 성장이 좋아지고, 3년이 지나면 번식성적이 좋아지고, 4년이 지나면 닭은 꿀의 비육돈을 키우는 양돈장이 된다.

위의 내용을 다시 간추려 보자.

첫째, 판단 항목을 결정한다.

둘째, 판단 기준을 결정한다.

셋째, 판단 방법을 표준화 한다.

넷째, 판단 결과를 기록한다.

다섯째, 기록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集錄**